

## 법령 제·개정 동향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6.2.10.] [법률 제21331호, 2026.2.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나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b>구축형 연구개발사업</b>”이라 한다)으로서 <b>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b>사업추진심사</b>”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b>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3.~4. (생략)</p>

## 교통기본법안(입법발의)

[발의연월일 2026.1.30.] [의안번호 1647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제정]

### [제안이유]

그동안 교통 관련 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교통 격차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과 교통약자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평가 등을 통해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프라 중심에서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보편적 이동에 대한 권리를 가짐(안 제3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교통권을 진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은 국가 교통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시·도 교통기본계획 및 시·군 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저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1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3조)



## 국내외 ITS

# 월간토픽

2026년 2월은 자율주행·AI 기반 교통기술이 실증을 넘어 상용화와 제도화 단계로 본격 진입한 달이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프라 관리, 로보택시, 신호우선, 돌발검지까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시 운영 전반으로 확장됐다.

### 국내 토픽

####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택시업계와 '자율주행 전환' MOU...“한국형 로보택시 추진”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법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내 택시 운행 환경과 사업 구조, 제도적 요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관제·운영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약 100만km의 누적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롤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 실시간 환경 인식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E2E'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로보택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 2026.2.3.)

#### 올해 교통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철도', '자율차', '약자동행'을 핵심으로 한 광역·도시교통 업무계획을 나란히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GTX 노선 확충과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선정 등 광역권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상암 무인 로보택시, 약자를 위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주력한다. 두 기관의 사업 규모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자율주행 등의 발전된 기술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점은 일치한다. (내 손안에 서울, 2026.2.3.)

## 노타, 티맵·네이버지도·카카오내비에 '실시간 자동 돌발검지 서비스' 제공

AI 기업 노타가 판교 교차로에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동 돌발검지 시스템을 적용해 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티맵 등 민간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 실시간 돌발상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CTV 자체에서 돌발상황을 자동 검지하여 상황 검지부터 정보 전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대응 속도와 운영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26.2.5.)

## 韓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일본서 자율주행 택시 실증 사업 시작

한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일본 도쿠시마현 나루토시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택시 실증 사업에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A2Z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시스템을 탑재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를 투입해 대중교통 체계 적용을 검증한다. 한지형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 온 실증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의 교통 환경과 제도에 부합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26.2.8.)

## 스마트 도시 시대, CCTV 장애관리의 현재와 미래

CCTV가 스마트 도시 및 국가 인프라 운영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안정적인 영상보안 인프라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인 CCTV 장애관리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네트워크 장애와 전문 운영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의 올바른 도입과 활용으로 자동화된 장애 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AI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장애 대응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2026년은 CCTV 장애관리 솔루션이 도시와 사회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뉴스, 2026.2.8.)

## R&D로 성과 낸 중소기업, '돈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R&D 우수과제'와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을 마련하여, 선정된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한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잘 만들고 잘 파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하여 돈이 되는 R&D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2.11.)

### “자율주행 엷지 케이스 확보 시급...실증 범위 넓혀야”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예외적인 위험 상황인 '엷지 케이스' 수집과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엷지 케이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빠른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및 서비스 모델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 연구와 광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10월부터 자율주행차 200대를 광주에 투입해 본격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2026.2.11.)

### “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을 전수조사하여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지점에는 위험수준에 따라 열선과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며,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 및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를 병행한다. 또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며, 김윤덕 장관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2.12.)

### 수원특례시, 모든 소방서 긴급차량에 우선신호 적용

수원특례시는 긴급차량의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해 교차로 진입 시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관내 소방서의 모든 긴급차량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단말기 추가 설치를 통해 수원·수원남부소방서의 모든 긴급차량에 100% 우선신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스템 도입 후 평균 통행 시간은 63.5% 감소해 종합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연평균 14건이던 긴급차량 교통사고 건수도 0건으로 줄어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6.2.23.)

### 스마트 시티 핵심 'AI 네트워크' 공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6G 이동통신 구현을 위한 미래 인프라인 'AI 네트워크' 기술을 공개한다. 이 기술은 AI가 스스로 네트워크 상태를 판단하고 운영하며,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에 SK텔레콤은 AI 기지국을, KT는 자율 네트워크 기술을,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트윈과 AI를 결합한 기술을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정부도 이번 전시회에서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AI 기지국을 구축해 6G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26.2.24.)

## 해외 토픽

### 中 상하이 도로 3분의 1, 자율주행 테스트에 쓴다

중국 상하이시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자율주행 시험 구역으로 활용하며, 개별 구역에 한정된 실험을 넘어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통합 실증 단계로 진입했다. 상하이시는 현재까지 41개 기업이 932대 차량에 대한 면허를 취득해 누적 주행거리 3,455만km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법규와 기술 표준을 연계해 자율주행을 도시 전반에 접목하고, 산업망 협력과 국제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2026.2.13.)

### 도로 상태와 인프라 결함을 탐지·관리하는 DriveOhio 데이터

혼다와 오하이오주 교통부(ODoT)가 공동 운영하는 'DriveOhio'는 실시간 차량 생성 데이터를 통해 도로 상태와 인프라 결함을 감지하고 보고하는 '사전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첨단 비전 및 라이다 센서와 엣지 AI 모델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파손되거나 가려진 표지판의 99%, 파손된 가드레일의 93%를 정확하게 감지했다. 수동 검사 필요성을 줄인 이 시스템은 연간 45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직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혼다는 차량의 익명화된 데이터 공유를 통해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나은 도로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TS International, 2026.2.18.)

### TSP 이니셔티브 이후 버스 지연 20% 감소

미국 오리건주 버스 운영사인 체리엇(Cherriots)과 커넥티드 차량 솔루션 제공업체 리트(Lyt)가 세일럼(Salem)에 대중교통 신호 우선(TSP) 기술을 도입한 결과, 지연 운행 버스가 20% 감소했다. 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은 가장 혼잡한 노선인 랭커스터 드라이브(Lancaster Drive)를 따라 22개 교차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버스가 교통 신호와 통신하여 적절할 때 녹색 신호를 연장함으로써 전체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특화된 하드웨어 없이 무거운 인프라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지연 차량이 20% 감소했으며, 버스의 62%가 일정을 준수하기 쉬워졌다고 보고되었다. 체리엇 측은 이번 기술 도입이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밝혔다. (ITS International, 2026.2.19.)

### 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 감지 솔루션 시범운영

제넵틱 영국 법인(Jenoptik UK)이 영국 플리머스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 감지 솔루션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화질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활용해 주야간에 관계없이 전면 및 상단 이미지를 캡처하여 위반 사항을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데번 및 콘월 경찰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이 심각한 충돌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을 두 배가량 높인다고, 단속 자체보다는 운전자의 주의 분산 방지와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ITS International, 2026.2.20.)

##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2.28.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통영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통영시	550,000,000	2026. 03. 06.
일반용역	서영덕 하이패스IC(고속국도 30호선) 신규개설 타당성 및 교통조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경상북도 영덕군	140,000,000	2026. 03. 06.
일반용역	2025년 제주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1,900,000,000	2026. 03. 10.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고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지원규모(원)	모집마감일
컨설팅 지원	2026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컨설팅 지원) 모집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지원금액 추후 확정	2026. 03. 27.

### R&D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R&D	2026년 지역 단위 재난 위험도 AI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500백만원 이내	2026. 03. 05.
R&D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제별 예산 별도	2026. 03. 12.

## 통영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 일반사항

- ◎ 용역명 : 통영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 기초금액 : 금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정보통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교통, 환경,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 등장
- ◎ 통영시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로 전환 중
- ◎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스마트 도시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통영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범위

- ◎ (공간적 범위) 통영시 행정구역 전역
- ◎ (내용적 범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리빙랩 / 설문조사 추진계획 및 운영,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 지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관련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 문의처

-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회계과 (055-650-4423)
-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055-650-0751)

## 2025년 제주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 일반사항

- ◎ 사업명 : '25년 제주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 ◎ 사업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사업금액 : 1,9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민의 안전·편의 강화
- ◎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충전 사고 및 불법 점유 등 안전 리스크와 급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대응 기능과 주차민원 분석·대응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안전 AI 솔루션 구현

### 사업목표

- ◎ 데이터 기반으로 듣고, 보고, 이해하는 AI를 통해 주차장 화재 안전과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자동화 및 정책결정 지원을 실현
- ◎ 데이터 허브 연계형 NGSI-LD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고 오픈소스로 제공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는 범용 AI 행정 모델로 발전
- ◎ 본 사업 간 주차장영상 및 민원/행정 문서 등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전 AI 분석 솔루션” 제공으로 행정 자동화 및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시티팀 (064-710-4821, 4822)

## 2026년 제1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컨설팅 지원)

### 개요

- ◎ 목적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 ◎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컨소시엄 참여사 모두)
  - \*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 ◎ 신청대상 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 \*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제3의2호에 명시된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 에너지·건설 관련 플랜트 사업 등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 \*\* 운영형 투자사업의 경우 인프라 또는 지분의 매각에 관한 입찰참가 자격을 확보한 사업에 한정
- ◎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10억원/건)
  - 대기업/공공기관 : 분담의무 10% 이상 및 현금 분담만 인정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분담의무 5% 이상 현금 분담만 인정

### 추진 일정

- ◎ 사업모집 : 2026. 2. 27.(금) ~ 2026. 3. 27.(금) 17:00(KST)
- ◎ 심사 및 선정 : '26년 4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 (02-6746-7377/7413/7359)

### 비고

-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협정서 체결 필수
- ◎ 협정서 체결후 2개월 이내 용역수행사 선정에 협조 필요
- ◎ 미선정된 사업중 예비 사업 지정 ※ 6개월 간 유효

# ITSK NEWS



## ITSKorea, 26년 이사회·총회 개최 AI·강릉 세계총회로 글로벌 도약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희, 이하 '협회')는 2월 25일(화) 양재역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2026년 제1차 이사회 및 제27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윈스톱수출·수주지원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해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방향을 심의·의결하고, ITS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연희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ITS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으며, 대륙별(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 ITS 대표기관과 인공지능(AI)·재난안전 등 유관 산업계도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총회에 앞서 ITS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전수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청 김민 주무관, 뱀부스(주) 송용주 이사, (주)싸인텔레콤 박은희 이사, (주)엠큐닉 김현도 상무, 협회 정민철 본부장 총 5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협회는 ITS 산업 발전과 협회 운영에 적극 협력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정광복 단장에게 감사패를, 에스트래픽(주) 최승호 상무와 (주)대로 최영춘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ITS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확산에 주력했다.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과 ITS 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국 단위 지역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확대, 민·관 합동 표준화 및 성능평가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신뢰성을 제고했다.

2026년에는 ‘AI 혁신과 세계총회 성공을 통한 ITS 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법·제도 기반 강화와 지역 확산, AI 기반 신기술 발굴·상용화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허청회 회장은 “AI 혁신과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며, “협회는 산업의 플랫폼이자 연결자로서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